

전주 덕진공원, 체류형 문화공원 변신 착착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마무리

‘머무는 공원’ 위한 수질·생태 회복·공간 인프라 개선 등 나서

전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덕진공원이 단숨에 산책을 즐기며 지나가던 공간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머물며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수질·생태 회복과 공간 인프라 개선 등을 중심으로 덕진공원을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점차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외부 수원 유입이 적고 물 흐름이 정체된 덕진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하교 서측 호수 퇴적물 준설 △관정 조사·개발을 통한 2개소 지하수(일 500톤) 추가 확보 △광측매 기반 수질정화 등을 병행해 왔다.

그 결과 탁도 저감 및 조류 번식 억제가 확인되고, 부영양화 지표가 안정화되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 노랑부리저어새의 서식이 잇따라 확인되는 등 생태회복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울러 시는 덕진호수 내 천연기념물인 남생이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수질·생태 회복과 공간 인프라 개선 등을 중심으로 덕진공원을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점차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사업 조감도.

구체적으로 시는 올 연말까지 한국남생이보호협회와 협력해 남생이 서식지 조성과 외래종 거북 퇴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부터 덕진공원 일원에서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삼태극 연지교 재가설 △수변 쉼터 조성 △전통 담장 수국길 조성 △연하교·벽진폭포 미디어파사드 설치 등 방문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추진된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최근 완료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조성된 열린 광장을 갖추게 됐다.

열린 광장은 넓은 잔디광장과 원형 광장을 갖추고 있으며, 원형 광장 바닥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디자인과 야간 조명을 적용해 주·야간 활용도를 높였다.

동시에 시는 덕진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창포원’을 전통적인 친수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있다.

창포원은 단웃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옛 풍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체험과 휴식이 어우러진 전통 공간으로 조성되며,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는 덕진공원 내 노후 산책로 일부 구간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이용객의 보행 환경 안정성과 편의를 더욱 높이고, 경사·배수 문제를 보완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변화 중인 덕진공원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문화 행사를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덕진공원에서는 올해 KBS ‘전국노래자랑(전주편)’이 열려 약 5000명의 시민이 함께 노래하고 응원하며 덕진공원의 새단장을 함께 축하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덕진공원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며 즐기는 대표적인 도심형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 효자1동·삼천3동 끝으로 35개 동 주민 소통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을 위해 올 한해 추진해 온 시민과의 소통 행보인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무리했다.

우범기 시장은 14일 오전과 오후 각각 효자1동과 삼천3동을 찾아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효자1동·삼천3동 주민들과 대화에서는 △완산철봉 등산로 정비(효자1동)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효자1동) △정동마을~중안삼거리 인도 개설(삼천3동) △농촌마을 농로·농수로 정비(삼천3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주민 의견이 제시됐다.

우 시장은 이날 효자1동·삼천3동 주민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지난 1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전주시 35개 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온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10개월 동안 진행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각 동 자생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총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시장 기초자치정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지

역 현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35개 동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총 200여 개의 건의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이 접수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주민과의 만남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그늘막 설치 △공원 정비 △가로수 정비 등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 후 조치토록 지시했으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전달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농속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 나눔 공간 조성’ 건의 사항에서 착안해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맞는다’는 전주형 공유 주방 ‘함께주방’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반찬 나눔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 교육 등이 이뤄지는 공간인 ‘함께주방’은 지난 6월 노송동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에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지난 9월 전주푸드호점점에 2호점이 문을 열고 올 연말에는 3호점이 문을 열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정원문화센터 수강생 작품전시회 열려

전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국화향기에 취하고, 가을빛에 물들다’를 주제로 국화분재 교육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정원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국화분재 만들기’ 정원 교육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강사와 함께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수강생 작품을 비롯해 박쥐란과 야생화 등 총 118점 작품이 전시되어 시민에게 가을에 즐길 수 있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또한 전시 기간 정원문화센터 곳곳에는 △캐리커처 △자개공예 키템 △



매듭공예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눈과 손을 모두 즐겁게 했다.

동시에 정원문화센터 야외 정원에는 국화 향기와 어우러진 포토존과 도자기 조형물이 설치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서부시장 사고 예방 위한 안전 점검 나서

최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서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4일 감장체험행사가 펼쳐진 서부시장상점가를 찾아가 전통시장 내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우 시장은 노후화된 서부시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서부

시장 노후전선 정비공사’와 ‘서부시장 전기안전 감시장치 설치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부시장 내 소방·전기·도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공사 시행을 주문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역 고속철도 확대 방안 모색

전주시·전주시정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전주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분야의 해법이 될 전주역 고속철도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난 14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 베스트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이상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교통·철도 분야 전문가와 학계, 관계기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정책 비전-전주역 고속철도 증편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선(전주역) 고속열차 증편의 필요성과 전주 교통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관용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25 전주 교통현안 진단과 고속철도 중심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전주시 도로망과 철도역 현황, 광역 통행량 및 수단분담률 등을 분석

한 후, 도로 중심의 전주권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될 점을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전주 역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언했다.

이어 김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전주역 고속철도의 초과수요 진단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난 2024년 고속철도 수송 실적을 분석하며 전주역의 평일·주말별 초과수요 현황과 경부선·호남선과의 운행 형평성을 비교·분석했다.

김 교수는 전라선의 운행 편수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전주·서울·광명 등 수도권 구간의 예약 실패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크시간대 집중 배치와 좌석 공급 확대, 타 노선 일부 열차의 전라선(전주역) 정차 전환 등 탄력적 운행 방안을 제시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난 14일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정책 비전-전주역 고속철도 증편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했다.

또한 “KTX와 SRT 도입 이후 고속열차는 국가 광역교통망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라선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권용석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엽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 등이 참여해 전주역 고속열차 증편의 필요성, 대광법 개정으로 확보된 제도적 기반과 광역교통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고속열차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광역교통망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KTX·SRT 통합 및 광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철도 운행계획이 재조정될 시기를 전주역 증편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와 시정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라선(전주역) 고속열차 증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